



산업보건관리와 품질관리

전남지부 부지부장 김 양 옥
전 남 의 대 교 수

이 글은 84.7.3 제 17 회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전남지부의 산업보건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현장의 보건관계자 여러분에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산업보건관리라는 것이 기업주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근로자만의 일방적인 권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을 것이지만, 오늘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하여 산업보건관리가 기업주와 근로자의 양자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보건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 임해야 할 것 인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사 례 -

S 회사는 코일용 전선을 만드는 회사로서, 외국의 고급 원료와 반 자동화된 공정에

불구하고 제품의 낮은 품질로 인하여 특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 회사의 보건관리를 맡고 있는 P 씨에게 어느 날 진귀한 방문자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S 회사의 종업원이었다.

▲방문자 : 우리는 코팅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번 망설이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상의하러 찾아 왔습니다.

▲P 씨 : 찾아주어서 고맙소.

▲방문자 : 우리 작업장에는 독한 에나멜 냄새가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그곳에서 일하

고 나면 두통과 현기증이 생기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런 냄새를 오래 맡으면 무서운 병이 생긴다고 하여 처음에는 몇 모르고 들어 왔다가도 곧 다른 회사로 떠나 가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는 우리에게 위험수당을 한푼도 주지않고 있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타민이나 보약을 사먹고 몸을 견디어내야 하겠으니 사장께 잘 여쭙어주십시오.

-P 씨는 이 회사의 보건관리자로서 그 작업장을 잘 알고 있는 터였고 어떻게든지 해결

해야 할 것으로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었는데 질책과 같은 요청을 듣고 있는 것이었다.

▲P씨 : 글썄 참 딱한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 다지요? 가령 위험수당이라 면 얼마나 되면 좋겠소?

▲방문자 : 그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정했으면 합니다만은…….

▲P씨 : 한달에 5,000 원 정도?

▲방문자 : 그것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P씨 : 그러면 10 만원 정도면 될까?

▲방문자 : 그렇게 많이야…….

▲P씨 (내가 이런 흥정을 하고 있다니……) 가만이 있자 사실 이것은 위험수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으니,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요구하기로 하는 것이… 냄새가 없고 몸에 해롭지 않는 작업장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방문자 : 예? 환경개선이요?—자기네끼리 서로 마주 보며 잠시 생각했다—예 좋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P씨 : 한번 해봅시다. 될

수 있을꺼요. 사장께 위험수당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작업환경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방문자 : 그렇게만 되면 우리도 회사를 떠날 필요 없이 얼마나 좋겠어요? (환성)

—P씨는 그 길로 사장을 만나서 그 요지를 설명했다. 물론 20여명의 위험 수당을 따지더라도 작업환경 개선쪽이 경제적인 것이라는 의견도 곁들였다.

사장은 전후 사정을 듣고 쾌히 승낙을 했고 관계직원에게도 작업지시를 내렸다. P씨는 모처럼 보건관리자 노릇을 한번 멋지게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만점이었다.

그런후 1주일이 지난 어느날, P씨는 작업환경개선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현장을 방문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작업반장 : 생산부장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P씨 : (T 부장을 찾아서 묻는다) 여보 / T 부장, 사장의 지시를 아직 받지 못했소?

▲T 부장 : P 선생은 왜 그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다니시요? 우리는 지금 생산량

이 모자라서 바빠 죽었는데, 호강스럽게 환경개선이 다 뭐요? 전번에 근로감독 대비용으로 구입해 놓은 방독면은 어디다 쓰는거요? 냄새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쓰고 일 하라고 했소. 생산에 쫓기고 있는 판에 뭣 때문에 기계를 세우고 돈 들이고 한단말이오?

▲P씨 : 그래요? 그렇다면 T 부장이 한번 방독면을 쓰고 하루만이라도 일 해볼 생각은 없오?

▲T 부장 : 아니 거기서 누가 쓰러져 죽기라도 했던 말이오? P 선생이 그렇게 하니까 그애들이 저렇게 한거요. 걸핏하면 결근, 걸핏하면 퇴직, 이렇게 불량품이 많아져야 장사인들 온전하게 되질 않아요. 정신이 틀렸어요. 정신이, 그렇게 문을 열어놓지 못하게 해도 어느틈엔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품질관리에는 도대체 생각을 하지 않으니 죽을 지경이오.

▲P씨 : 문을 열어 놓지 않게 환기장치를 달아 줄 수는 없는 것이오?

▲T 부장 : 모르는 소리 마시오.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으면 에나멜피복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해 놓은 것은 P 선생도 잘



- 검 토 -

1. 종업원의 방문이 뜻하는 것

알면서 그러시오. P선생,너무 그 애들 뜻을 받아주지 말아요. 그 애들은 정신좀 차려야 해요. 나는 어려서 일배울 때 에나멜을 둘러쓰고 일을 했어도 이렇게 멀쩡하지 않소?

▲P씨 : (아니 저 친구가 왜 저러지? 저런사람이 아닌데……) 여보 T부장, 그러니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오.

▲T부장 : 그렇게 추켜세워주니 기분이 나쁘지 않는데...-얼마 후 논쟁은 서로 웃음으로 끝났다. 이 논쟁을 고비로 작업환경 개선작업은 급진전되었으며 2, 3일 후에는 1개조가 시험적으로 개선되었고 시험가동 결과 효능이 양호했다. 더구나 제품의 품질은 종전보다 훨씬 좋았고, 이렇게 하여 계속 그 작업부서의 8개조 모두가 개선이 끝났다. 근로자의 사기는 충천했다. 그들의 의견이 성공의 계기가 된 것에 만족한 것이다.

그 후부터는 입사후 사흘이 멀다 하고 떠나버리던 종업원들도 이제는 오랫동안 안정된 마음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S회사제품의 품질은 급속도로 향상되었다.

제품의 품질관리 이전에“작업자의 품질관리”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종업원의 대표 몇 사람의 방문은, 제품의 품질관리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터에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준 셈이다. 많은 주저끝에 이루어진 P씨와의 대화가 없었던들 그 회사의 제품은 계속 최하위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장이라도 말없이 참아야 하고, 참지 못하겠으면 떠나면 그만이며, 건설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불평분자로 지목하는 상황에서 좋은 노동인력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2. 위험수당의 유혹

경험이 적고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약간의 위험수당과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는 비타민이나 보약따위로 건강을 지탱해 보겠다는 것이,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발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건관리

를 전문으로 한다는 P씨는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그런 착각속에 안주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또 얼마정도의 돈이 생긴들 건강을 잃고는 아무곳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P씨가 건강과 위험수당을 가지고 흥정 할 뻔했던 위험을 우리 누구나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3. 보건관리체계의 독립성

사장과 현장간에는 서로 극복해야 할 많은 장벽이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전무, 상무, 부장, 과장, 계장, 반장 등과 같은 계층이 많이 있어서 그들 모두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나머지, 자신의 임무에 역행되는 듯한 경우에는 본 사례와 같이 사장의 뜻이라 할지라도 중도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T부장과 같이 생산에 쫓기어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냉정을 잃게되어, 심지어는 방독면을 쓰고 근무를 하라는 해괴한 요구가 나오는 수가 있다. 하물며 현장의 사정이 사장에게 거슬러 올라 가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고, 각 종업원의 건강은 물론이요, 어찌면 회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박한 안전보건문제도 사장

은 전혀 모르고 있는 수가 있다. 생산일변도로만 저돌하는 회사, 그것은 사장의 뜻이 아닐 것이요, 생산의 참 뜻이 될 수 없다. 여기에 생산체계에 예측되지 않는 안전보건체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아

무리 명중률이 좋은 총도 안전장치가 없다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저주받는 괴물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수준높은 산업보건관리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하였으나, 이번을 계기

로 하여 회사내에 독립된 보건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사례는 한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고 아직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계속 잃을 것이다.

제 2 차 한일산업보건 학술집담회 안내

저희 협회에서는 산업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의 일환으로서 한일산업보건 학술집담회를 매년 양국에서 차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 2 차 집담회는 다음과 같이 일본에서 개최하오니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여러분과 보건관리자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일 시 : 1985년 4월 5일 ~ 4월 6일 (2일간)
- 장 소 : 日本 京都市 堀川 (Horigawa) 會館 및 宮木 (Miyaki) 記念홀
- 초록마감 : 1984년 12월 25일 (英文)
- 참가신청 : 1985년 2월 29일
- 마 감
- 회 비 : 日貨 1万円
- 숙박비 : 堀川會館 1인용 : ¥ 5,700 2인용 : ¥ 4,100
- 문의처 : 당 협회 사무국

협 회 안 내

본회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진흥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공헌하고자 설립된 노동부 산하의 공익법인('64. 7.6 보허 제 667 호)으로서 사업체의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 연구기관에서 산업보건을 연구하는 자 및 산업보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회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
|----------------------|----------------------|
| ○ 산업보건사업의 홍보, 지도, 계몽 | ○ 산업보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
| ○ 정부위탁사업 실시 | ○ 학술,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
| ○ 사업장 보건관계자 직무교육 | ○ 회 원 지 원 |
| ○ 근로자 건강진단 | ○ 국 제 교 류 |
| ○ 사업장 보건진단 | ○ 기타 산업보건에 필요한 사업 |